

강운성 광주전남시도민회장 “고향 발전 위해 힘껏 응원”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릴레이 동참



“몸은 타지에 있지만 마음은 늘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있습니다. 고향 발전 마중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발전이 힘이 되도록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올해 1월 광주전남시도민회 제37대 회장으로 취임한 강운성 회장이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전남도와 시·군에 기부금 기탁 의사를 밝혔다.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에는 강 회장과 함께 양광용·이성백 수석부회장, 김부연 상임자문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강 회장은 강진 출신으로 식품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회사인 한일실업(주)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전남인재육성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 지구 총재,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시도민회는 2022년 9월 향우회원 4천여 명이 참석한 고향 방문 행사, 전남인재육성장학금 기

탁,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전남 농수특산물 업무협약 및 구매운동 등 고향 농수특산물 판매·홍보에도 동참해 고향 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오종우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전남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전남 발전에 항상 도움을 주는 출향 향우의 소중한 마음을 기억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된 기부금은 기부한 분들의 마음이 전남 발전의 디딤돌이 됐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기부금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적십자사회 신안지구협의회, 환경정화 활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최근 대한적십자사신안지구협의회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군 신의면 생태도 일대에서 ‘오늘도 깨끗해(海)’ 해안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광주전남지사서에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증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환경보호와 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수자 대한적십자사신안지구협의회 회장은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들이 많았는데 많은 봉사원분들이 참여해 정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적십자 봉사원과 함께 우리 지구를 살리는 캠페인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자원봉사센터, 협력기관 실무자 회의 개최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재규)는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업,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과 자원봉사단체 등 50여 명이 참여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회의는 기업의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유관기관과 함께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제안·논의해 올 한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ESG기반의 활동들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여한 기관 실무자들은 함께 공감하고 기획해

연대와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살기 좋은 방향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을 공유하고 있다.

임이업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한 각 기업과 유관기관들이 작은 아이디어라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성장과 광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이 예상보다 많았다”며 “광주기업봉사단협의체 활동이 광주공동체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간사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에어로빅 도입 이영숙 교수 별세



국내에 에어로빅을 도입하고 정착시키는데 일생을 바친 이영숙(사진) 전 상명대 체육학부 교수가 26일 오전 3시33분께 강북삼성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0세(만).

향해도 재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김천여고, 경희대 체육학과를 졸업했다. 김천여고 졸업 후 대구여중, 대구효성여고 등에서 체육 교사로 일했다. 대구효성여고에 있을 때 1962년 제43회 전국체전 개최식 매스게임 안무를 맡은 것을 계기로 1965년 설립된 상명여자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과장으로 초빙됐다. 1975년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에어로빅에 대해 듣고 미국 타운스주립대에 가서 에어로빅을 접했다.

1975년 8월 이화여대에서 한국여성체육학회가 주최한 전국 체육·무용교사 강습회에서 에어로빅 개발자 제기 소렌슨이 만든 ‘건강을 위한 에어로빅댄스’ 12주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강습회 후 학생과 가정주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연합뉴스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은병원과 업무협약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이 최근 은병원(병원장 김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은병원은 협약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중사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제공>

TV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금이아욱이(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보 좋아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동행(재) 55 안녕 우리말(재)	00 오아시스(재)	15 헬로키키 공학교실(재) 30 반짝이는 프리채널3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UHD 특선 다크 <드라이빙 트래블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키 글로벌 동물 뉴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뉴스브리핑
[3]	00 영성앨범 산재) 30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둥실 문개공방 3(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일타강사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50 테마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50 비밀의 여자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금이아욱이야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오아시스	00 PD수첩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기획 창 50 더 라이브		00 헛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00 꽃선비 열애사
[11]	30 KBS 뉴스라인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30 100분토론	1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재)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스튜디오 K	55 TV예술무대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8:00 로보가 폴리
07:00 뽀롱뽀롱 뽀로로	12:00 EBS 뉴스 12	18:30 정글 플래닛
07:15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2:1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디브와 블랙캣
07:45 뽕뽕뽕 뽕뽕뽕	13:00 바닷가 사람들	19:30 한국의 둘레길
08:00 엉덩방 유치원	13:50 EBS 다크프라임	19:50 극한직업
08:20 출동! 슈퍼윙스	14:45 한국의 둘레길	20:40 세계테마기행
08:35 명탐정 피트3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로보가 폴리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제주로 봄 보러 갈래 2부
09:05 슈퍼투퍼 잉글리시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봄이리니 좋잖아요
09:20 빅 블루	16:15 페퍼 피그	21:50 EBS 다크프라임
09:35 타타와 쿠마	16:25 명탐정 피트3(재)	22:45 건축탐구 - 집
09:40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6:40 당동당 유치원(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8일(음 윤2월 7일 乙酉)

<p>36년생 준수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48년생 취지는 좋으나 실행의 방안에 문제가 있다. 60년생 걱정할 필요 없으니 마음 놓고 있고 있어도 된다. 72년생 궁극적으로 기반을 공고히 하는 셈이 된다. 84년생 가치관이 흔들릴 정도의 강한 자극이 보인다. 96년생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방심하기 쉬운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4, 91</p>	<p>42년생 돈은 보이나 잘 돌지 않아서 문제이다. 54년생 성급한 확장보다는 내실 있는 유지가 절실하다. 66년생 지나치게 되면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78년생 초심을 잃지 말고 일관되게 진행하자. 90년생 미뤄서는 안 될 일이나 서둘러 이행해야겠다. 02년생 방비를 잘해야만 누적인 실적이 무너지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31, 78</p>
<p>37년생 동무 따라 강남 갈 수도 있느니라. 49년생 순간적인 착오가 많은 손실을 부르지 않을까 두렵다. 61년생 사소한 국면이 사로잡히지 말고 편견 없이 대할 일이다. 73년생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다. 85년생 안정세를 취하면서 견고해지겠다. 97년생 개입하지 말고 잠자코 있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11, 75</p>	<p>43년생 상당한 기간을 두고 서서히 유도에 나가자. 55년생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서 애를 먹겠다. 67년생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고 조처해야 할 때다. 79년생 끝내 미련을 떨쳐 버릴 수 없으리라. 91년생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자. 03년생 열린 마음으로 투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생산성을 제고한다. 행운의 숫자 : 05, 86</p>
<p>38년생 물심양면의 상호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50년생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려 하지 말고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정답이다. 62년생 현재의 시점에서 빈틈을 보인다면 치명적일 것이다. 74년생 시작했으면 끝맺음을 잘해야 한다. 86년생 방향을 잘 잡아야 할 시점임을 알라. 98년생 개선되는 위상이니라. 행운의 숫자 : 96, 61</p>	<p>44년생 먹구름이 사라지면 모습이 보이게 시작한다. 56년생 내키지 않으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 68년생 점진적인 활동이 안정 계도로 이를 것이다. 80년생 의외의 이익이 상당하게 생길 수도 있다. 92년생 원동력이 될 만한 유망한 여건들이 조성되는 기운이다. 04년생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청산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16, 63</p>
<p>39년생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아니 되니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 51년생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3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75년생 너무나 크고 충격적인 일이라서 아무 경향이 없을 것이다. 87년생 쉽게 보지 말라. 99년생 확실히 승세를 균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6, 53</p>	<p>45년생 합리적으로 운용해 나간다면 부가 따른다. 57년생 허구한단편 용기를 갖고 임해야 한다. 69년생 공로의 급자 탐이 눈부시게 빛나겠다. 81년생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느니라. 93년생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05년생 시간을 아끼며 집중적으로 몰입해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19, 82</p>
<p>40년생 센스 있게 대처하고 재치 있게 판단해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52년생 누적되어 온 것을 정리하게 된다. 64년생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겠다. 76년생 지연되었던 난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다. 88년생 예상 밖의 커다란 변수가 보이니 대비하라. 00년생 작은 것을 취하려다가 큰 것을 버리겠다. 행운의 숫자 : 37, 90</p>	<p>34년생 오는 손님 막지 말고 가는 손님 잡지 말지이다. 46년생 누락이나 중복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58년생 상대의 속사정은 따로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70년생 이변을 자초하는 동세가 대비될까 두렵다. 82년생 누락될 수도 있으니 잘 살펴야 하느니라. 94년생 실제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12, 70</p>
<p>41년생 세심하게 살펴봐야야 편할 수 있을 것이다. 53년생 부수적인 일은 보류하고 큰일을 도모해야 한다. 65년생 흐린날 날씨가 개이고 행하고 해가 뜨리라. 77년생 요령 없는 대응은 보잘것없는 결과를 낳고야 말 것이다. 89년생 진행해도 무리가 없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다. 01년생 의연해 질 필요가 있겠다. 행운의 숫자 : 20, 85</p>	<p>35년생 끝까지 절제된 언행을 한다면 시비수를 피해 갈 수 있다. 47년생 결과로 인한 파급 효과까지 감안한 후에 실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본다. 59년생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경사가 보인다. 71년생 중간에서 참으로 단호한 처지가 될 수도 있다. 83년생 대인 접촉은 경계하는 것이 상책이다. 95년생 무리하지 않게 조처하라. 행운의 숫자 : 30, 65</p>